

# 1980년대 오버사이즈 패션의 내적 의미 분석

이효진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 전공 교수

과학과 기술발달이 가속화되면서 미래 사회에 대한 동경심이 확산되었던 1980년대는 기성세대의 이분법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발로 당시의 젊은이들은 기존의 패션 규칙을 깨기 시작했다. 바로 현재의 시대적 상황이 1980년대의 사회 분위기와 비슷하며 패션에서도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스타일이 지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980년대 풍이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역동적이고 힘이 있는 스트리트 문화에 대한 매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특히 착장법에서 오버사이즈의 의복으로 무엇이든 다소 큰 듯한 볼륨감 있는 스타일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패션뿐만 아니라 문화의 다양한 영역에서 보이는 1980년대 풍은 단순히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21세기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강하고 현대적인 여성적 이미지를 주는 1980년대의 파워 수트가 21세기 들어 부활하고 있는 지금, 유행의 변화는 법칙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한 시대의 감각과 생각, 그리고 사람들이 옷을 입을 방식 사이에는 실제로 내적인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1980년대 패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오버사이즈(oversize) 패션을 통해서 나타나는 내적 의미를 연구해 보는 것은 진정한 미의 개념을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관점으로 패션 현상을 정립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적 자료를 객관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오버사이즈 패션이 등장하게 된 시대적 배경으로는 다음의 네 가지 요인을 고찰할 수 있다. 1) 공존의 시대(The Age Of Coexistence): 현재와 과거의 복합적 패션이 공존하는 시대로 제 3국의 문화양식과 정통 민속복이 패션계에 새로운 주제로 대두되었다. 2) 제 2의 르네상스(Renaissance): 제 2의 르네상스라고 불리었던 1980년대 초 신낭만주의 스타일은 여성들의 새로운

역할을 인지하게 하였으며 오버사이즈 패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3) 대중매체의 영향: 여피의 등장과 달라스, 다이내스티와 같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인기는 성공한 사람들을 표현해주는 의상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높였다. 특히 여성 여피족은 매니시한 오버사이즈의 테일러드 수트를 선호하였으며 남성 여피족은 주로 넓은 어깨와 이탈리아 풍의 긴 재킷, 밑으로 가면서 좁아지는 바지에 생가죽 구두나 끈 달린 단화를 신고 멋진 더블 브레스트 수트를 착용했다. 4) 포스트모더니즘 양식: 1980년대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든 디자인 영역에 다원주의, 역사주의와 장식의 부활을 유도했다. 이로써 흥미로운 소재가 실험적 정신과 공예 기법으로 오버사이즈의 건축적 실루엣을 선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분석한 오버사이즈 패션의 내적의미로는 1) 새로운 여성성, 파워수트(Power suit): 남성복에서 기원한 파워 수트의 어깨 패딩은 권위와 힘, 여성의 해방을 의미하는 1980년대의 상징적인 유행 중의 하나였다. 2) 가난의 미학, 그런지 룩(Grunge look)과 레이어드 룩(Layered look): 그런지 룩과 레이어드 룩의 의상들은 신체 형상을 강조하지 않았으며 대단히 편안하고 착용하기 쉬웠으며 이러한 의상에는 화려한 의상을 통해 암시되는 여성성의 이미지를 거부한다는 의미가 담겨있었다. 3) 스포츠의 영향, 빅 룩(Big look): 스포츠웨어가 유행하면서 일상복화 되었고 남녀 구별없이 누구나 입을 수 있는 크고 헐렁한 스타일의 글래머러스한 감각의 빅 룩으로의 발전되었다. 운동과 운동복은 여성들의 적극적인 이미지를 촉진시켰다. 4) 정형화된 성에 대한 도전, 앤드로지너스(Androgynous): 남성성과 남성의 역할에 관한 재평가가 특정집단들에서 시작되면서 성을 초월한 대중스타들은 옷차림으로 사회적 금기에 도전했다. 이러한 앤드로지너스 경향은 1980년대 오버사이즈 패션의 하나의 흐름이었다.